

#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이름		학번	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밴쿠버
파견대학	랑가라컬리지	기간	2018.8.5.(토) ~ 2018.8.25.(토)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                      위치는 랑가라 역에서 내려서 5분정도 걸어가면 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학교 규모 및 시설은 크고 좋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점심 먹기도 좋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.</p> <p>첫날에 간단한 듣기 시험을 통해 반을 총 6반으로 나눠 수업을 했고 교재에 나와 있는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지겹지 않게 영어게임도 섞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해주셨습니다.</p> <p>그리고 제가 있었던 반은 과제는 따로 많이 내주지 않았었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일본인들과 함께 반이 되었는데 한국인들로만 반을 나누는 것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고 항상 밝은 분위기에서 수업을 했었습니다.</p>
Activity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/li> </ul> <p>밴쿠버투어, 휘슬러, 카약                      카약 탈 때 여벌옷과 슬리퍼!                      휘슬러갈 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걸칠 옷 챙겨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</p>

	다.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현지 기후 및 유의점 처음엔 더웠지만 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. 근데 비가 온 뒤로 조금 추워져서 긴팔이 꼭 필요했습니다.
안전	현지 안전 상황  안전합니다! 근데 저녁 되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조금 무섭습니다.
숙소	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( o ) 외부 숙소( ) 기타( )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편하게 집을 이용하도록 해주셨고 밥도 완전 잘 해주시고 홈스테이주인분 이 너무 밝고 잘 대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규칙은 손씻거나 샤워하고나서 물기 및 정리하기.
식사	학교식당( ) 홈스테이( o ) 외부식당( o ) 기타( )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집에서 밥을 너무 잘해주셔서 집에서 잘먹었고 친구들과 밖에서도 종종 사먹었습니다. 제 입에는 음식이 다 잘 맞았습니다.
교통	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는 30~35분 정도 걸렸고 버스26번, 49번을 타고 학 교까지 통학했습니다. 그리고 교통은 편하고 알기 쉽게 잘 되있는 것 같고 구글 맵에 잘 나와있 습니다.

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 여행자보험	1,858,700	출국 전 사전 납부

음식	300,000	외식, 간식
교통	50,000	지하철, 페리
쇼핑	400,000	옷, 기념품 등등..
합계	2,608,700	

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.

반팔과 긴팔을 골고루 챙겨가기.

홈스테이와 미리 메일을 주고받으며 필요한 것,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기.

선크림을 꼭 챙겨 가기. (선크림을 안 발라서 다 탔어요..)

#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캐나다를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처음으로 가보았는데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.

학교생활도 너무 즐겁게 잘 했고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즐겁게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.

그리고 홈스테이 맘과 저녁에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영어 듣기나 말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외국인과 말할 때 항상 많이 긴장하곤 했는데 홈스테이 맘과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가 조금 편해짐을 느꼈습니다.

다음번에 기회가 한번더 생긴다면 좀 더 길게 어학연수를 가서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고 얻어 오고 싶습니다.

정말 잊지못할 추억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Langara colleg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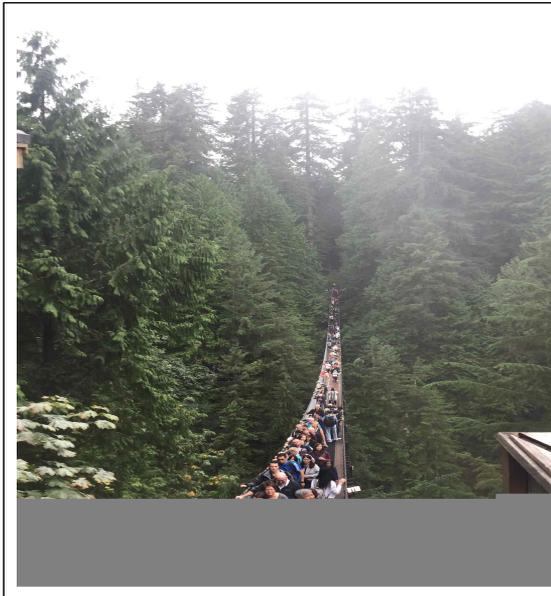
Gastown



canada place



butchant garden



캐필라노 브릿지



사무라이 스시(맛집)